

한국문학 세계화, 제 궤도 진입한다

시장원리 따른 상품경쟁력 갖추며 단순 소개서 본격 수출로 옮기는 추세

한국문학의 해외 번역출판이 바야흐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 한국문화의 해외홍보 차원의 것이 점차 "시장원리(자율성의 원칙)"에 의거해 상품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추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 전환기적 징후는 우선 번역출판사업의 주체가 '官'에서 '민간'으로 점이한다는 점에서 찾아진다. 아직까지도 문예진흥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등의 단체가 압도적으로 주도하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국출판사와 국내출판사(혹은 저자)와의 '저작권 직교역'과 저작권 에이전시를 통한 '중개무역'이 늘고 있는 것이다. 이문열씨의 여러 작품들과 조정래씨의 「태백산맥」이 그 대표적인 예.

두번째 징후는 번역출판물이 종래의 '엔솔로지' 위주에서 한 작가의 장편소설로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은 한국문학의 '샘플'을 소개한다는 단계에서 외국독자들이 선호하는 어엿한 '물건'을 내놓고 본격적인 수출을 모색하는 과정인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다.

한국문학 해외 번역출판의 전환기

또한, 우리가 우리의 작품을 순수 번역하는 단계에서 외국인들 스스로가 우리 문학작품을 스스로 선별해 번역,수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걸음마단계인 우리문학의 해외 진출이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여러 선결문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관계자들은 지적한다.

"문제는 번역이다"라고 입을 모은다. "문학작품의 번역은 텔레스 번역과는 같지 않다. 예술성까지도 옮겨야 한다"는 소설가 안정효씨는 그러나 "번역은 '제2'도 아니고 '창작'도 아니다. 번역은 고도로 정밀하게 발달한 기술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저자의 의도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번역의 '일치이론'에 가까운 그의 의견과는 좀 다른 의견을 최현무 교수는 개진한다. "불문학작품을 한역할 때 자신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 작품을 불역할 때 그렇듯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즉 그는 번역자의 의도를 좀더 중요시하는 것이다. 굳이 구별한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한국문학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좋은 번역이 필요불가결하다는 데에서는 전적으로 일치한다. "무릇 번역작업은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옮겨놓는 것을 뜻하는 것만은 아니다. 그보다 텍스트 속에 담긴 사상과 감정을 가급적

'한국문학의 세계화'는 생동하는 문명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에서 영향을 끼치는 일에도 동참한다는 의의를 지닌다. 시장원리에 의거해 상품으로서의 경쟁력을 갖추기에는 그러나 스프링크스의 난제들이 버티고서 있다. 번역, 번역자 선정, 번역 대상 작품의 선정, 출판의 문제들에 대한 지혜로운 대안을 찾을 때라고 관계자들은 말한다.

이면 정확하게 옮겨 놓는 것을 뜻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자의 근본적인 사상을 이해함은 물론이요, 저자 및 독자의 이질적인 문화권의 차이 및 시대환경 내지 시대정신의 차이를 면밀히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최현무씨는 이어서 "한국문학을 읽는 외국 독자라면 이미 자국문학을 섭렵한 사람일 것"이라는 점을 들어 "좋지 않은 번역은 오히려 외국독자를 한국문학에서 멀어지게 할 뿐이므로 차라리 번역이 안 되느니만도 못할 것"이라 한다.

번역자 선정문제에 관해 서울대 권영민 교수는 「한국문학 해외번역사업에 대한 단상」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학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직관적 인식을 겸비하고, 동시에 번역가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자국어로 시와 소설 등의 문학작품을 쓸 수 있을 정도의 문학적 역량이 필요하다"고 함으로써 외국인 번역가 양성에 힘을 써야 한다는 점을 내비친다.

역자가 아무리 유능하더라도 번역은 항상 '최후의 교역자'가 필요하다고 관계자들은 말한다. 혹시 오역이 하나도 없더라도 독자들이 읽기 쉬운 역서를 만든다는 의미에서 크게 필요한 작업이라 한다. 외국의 경우 역자와 교역자를 콤비로 취급하는 것을 정례화시켜, 양자의 이름이 책의 첫장에 나란히 병기되며 교역자는 보통 번역료의 삼분의 일을 받는 것이 통례로 되어 있다고 한다.

두번째로는 번역 대상 작품의 선정문제가 지적된다.

현재 한국문학 영어문예지 「블랙 크레인」 창간작업을 하고 있는 열음사 대표 김수경씨의 "한국문학의 질은 외국 것과 비교해 볼 때 절대



문예진흥원에서 외국어로 번역출판한 우리 문학작품집들.

뒤떨어지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상품으로만 거를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화도 상품화, 세계화시키는 노력을 할 때이다"라는 말처럼 보다 상품성 있는 작품을 선정해 번역 출판해야 한다는 것. 즉 번역된 책의 선택은 바로 그 역서를 읽을 나라의 독자라는 점에서, 그리고 번역판의 채산성은 그 독자들의 수요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번역대상 작품의 선정과정은 더욱 신중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리나라의 저작권 에이전시인 '신원 에이전시'와 'DRT 인터네셔널 에이전시'의 대표인 김순웅씨(38)와 박소진씨(65)는 "외국에서 잘 팔린다는 보장 없이 '민간인'이 국내작품을 해외번역출판할 수 없는 일"이라고 운을 댄 뒤, 에이전시를 통한 작품선정은 거개가 "우리나라 작품에 대한 안내팸플렛을 외국출판사에 보내면 그쪽에서 선별한 작품을 번역출판하게 된다."고 전한다.

번역, 역자, 작품 그리고 출판의 문제

한국문학이 세계에 보다 잘 알려지기 위해서는 훌륭한 장편을 중점적으로 번역출판해야 한다고 이태동 서강대 교수는 말한다. 시와 단편은 "세계문학 수준에 도달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그는 평가하지만 "솔직히 말해 우리의 장편문학 수준은 다소 뒤떨어진다는 것이다. 탁월한 대하소설이 몇 편 있지만 "서구의 규격에 맞는 수준의 소설은 아니기 때문에" 해외시장에서 자생력을 갖추려면 "적절한 규모의 장편"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현무 교수는 "해외번역출판의 초기에는 한국문학의 소개라는 차원에서 복수작가의 복수작품을 편역한 선집이 중심이 되었지만 이

제는 한 작가를 집중적으로 소개할 때"라고 밝힌다. 작품 또한 "가장 민족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말은 옳지만 그보다는 독자확보라는 측면에서 외국인이 보기에 이국적인 것보다는 "지극히 본격적이고 보편성 있는 주제를 다룬 작품"이 선정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한국문학의 세계화 작업이 안고 있는 또 하나의 과제는 출판문제. 한국 내에서의 외국판본 간행으로 "한국에 사는 외국인이나 한국사람끼리 돌려보며 좋아하는 것은 일종의 마스터베이션과 비슷한 현상"이라고 안정효씨는 말한다. 보다 중요한 과제는 "외국독자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팔리기도 잘 팔리는 것"이므로 "외국출판사의 유치도 우리 문학의 해외소개에는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이 점에 대해 최현무씨는 "불안한 느낌"이 든다고 한다. "외국의 너무 작은 출판사가 한국문학으로써 출구를 찾으려 하는 조짐이 보인다"며 더 나은 출판사의 관심을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책임감 있는 출판사의 장기적 기획"에 의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그밖에 한국문학을 알리는 데 가장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은 "한국문학을 스스로 알지 않을 수 없도록 한국 이외 지역의 사람들을 유도하는 일"이라고 김선학 교수(동국대)는 말한다. "한국의 현대문학을 알리기 위해, 현대문학 이전의 문학을 설명하고 소개함으로써 한국문학의 우수성과 그 독창성을 유도해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 아래 한국문화의 실체를 빠르게 이해시킬 수 있는 권위있는 개설서가 많이 번역되어야 하며, 문예진흥원의 지원 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번역사업이 더욱 확대되어야

일이 좋아 일을 찾아 즐기는 최병윤 부장의 하루

할 것은 물론이고, 외국번역가들의 전문적인 훈련을 위한 번역센터의 운영도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들이다.

대한출판문화협회가 우리나라가 세계저작권조약(UCC)가입 5주년을 맞이한 것을 계기로 해외에서 번역출판된 국내도서의 출판실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국내 출판사들의 해외진출 노력과 해외출판사로부터 국내출판물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받기 시작하여, 해를 거듭할수록 한국책은 해외 출판시장에서 잠재성 있고 매력이 풍부한 존재로서 관심이 확대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우리 작가들의 세계시장 진출의 활로

그중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번역출판된 분야는 문학으로 주로 일본, 미국, 프랑스에 집중되어 있다. 지금까지 해외에서 번역출판된 도서는 총 240종인데, 문학분야가 60%에 해당하는 142종을 차지한다. 미국의 경우는 70종 중 45종, 일본에서는 82종 중 30종, 프랑스의 경우는 20종 전부 문학분야이다. 언어권별 번역현황의 특징은 "영미계열에는 원로·중진급 문인들의 작품이, 프랑스쪽은 중진급 작가들의 근작이 많이 다루어졌으며"(한국일보, 92년 3월 8일자), 일본에서는 주로 "한국에 대한 일본인들의 정치적 관심의 연장선상에 있었다"가 "79년 윤홍길의 「장마」로 일본에서의 한국 문학 愛容史上 가장 인상적인 전기가 마련되어 확실한 문학적 시민권을 얻게 되었다"(본지, 102호)고 알려져 있다. 특히 장정일씨의 「아담이 눈뜰 때」나 이준중, 이문열씨 등의 불역소설에 대한 현지 일간지의 작품세계 보도 등 우리문학의 세계화는 더 이상 공허한 외침이 아니라 메아리를 얻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된다.

외국에 번역소개된 우리문학의 작품은 발행처가 문예진흥원인 것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지만, UCC가입 이후에는 저작권교역에 의한 현지 번역출판과 공동출판, 그리고 국내에서의 외국문 자주출판방식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민간차원에서 번역출판된 주요작품을 살펴보면, 이문열씨의 「황제를 위하여」, 김동리씨의 「사반의 십자가」, 황순원씨의 「움직이는 성」 등 10여권의 영역판이 시사영어사에서 나왔고, 고은씨의 「조국의 별」, 황석영씨의 「객지」 등 10여권의 일역판이 작가 또는 창작과 비평사와의 계약으로 현지출판되었으며, 민음사에서 나온 이문열씨의 작품들도 해외출판사와 작가와의 저작권계약에 의해 프랑스 등지

에서 번역출판되었다. 최근에는 조정래씨의 「태백산맥」과 박완서씨의 「서 있는 여자」 등의 작품이 저작권에이전시를 통해 일본의 출판사와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80년대에 한국문학시리즈를 번역출판했던 한림출판사, 금성출판사, 우경문화재단 등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더 이상의 뚜렷한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독일의 훔볼트 재단이나 일본의 '일본문학 100권 번역위원회'처럼 민간단체와 기업의 재정적인 협조가 필요하며, 그렇지 못하다면 출판계 자체의 홀로서기가 가능할 때까지는 출판선진국들에서처럼 정부 차원에서라도 체계있는 협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관계자들은 말한다.

"문명은 번역에 의해 생존하는 것이지, 외국어에 의해 생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에릭 벤트리는 말했다. 한국문학의 세계화는 생존하는 문명을 일반적으로 수용하던 입장에서 영향을 끼치는 일에도 동참한다는 의의를 지닌다. 또한 지구는 둥글다지만, 지구의 귀퉁이에서 태어난 죄로 인세수입이나 명예가 한반도 밖으로 한발짝도 확장될 수 없는 역량있는 우리 작가들의 불운함도 타개될 수 있는 계기도 된다.

우리 문학이 세계시장으로 가는 그 길목에 난제들이 스프링스처럼 버티고 서 있지만, 출판계의 지혜를 모으면 현명한 대답을 찾을 수 있으리라는 게 해외번역출판에 직간접으로 참여했던 전문가들의 공통된 결론이다. 해외 출판시장이 충분히 개척되어 우리 작가들이 탁월한 작품을 생산하는 일에만 전념케 된다면 우리의 문학사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 김중식 기자

아침 8시.
그는 어김없이 출근해 있습니다.
— 술이 좋아 과음한 다음날은 빼고 말입니다.
그리고 30분동안은 하루의 일과를 메모합니다.

월요일은 8시 30분부터 월요간부회의를 주재하여 그 주간의 현안과 관련된 과제와 문제를 풀어갑니다.

그의 하루는
작업진행현황을 구석구석 빈틈없이
확인하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 진행중인 일의 내용과 과정을
구슬땀 줄줄이 땀길 수밖에요.
직원들은 그런 그와 맞닥뜨리면
호랑이 만나는 것 같다고 합니다.

그는 아무리 쉬워보이는 원고일지라도
세 번쯤은 훑어보아야 판면구상을 합니다.

그는 정말 일이 좋아 일을 찾아 즐기는가 봅니다.
그의 하루는 정녕 종일토록
이런 마음으로 가득한가 봅니다.

그와 일 이야기를 해보면
시원시원할 것입니다.



컴피아트가 하는 일

- 편집 / 교과서 · 참고서 · 전문지 · 각종사전 · 어학교재 등
- 교열 · 교정 / 새로 개발한 '한글맞춤법 software'를 활용하므로 정확 무오합니다.
- 디자인 / 표지디자인 · 텍스트디자인 · 일러스트레이션 · 레터링 등
- 제작대행 / 조판 · 제판 · 인쇄 · 제본 등 책의 제작공정을 대행관리하여 납품해드립니다.

컴피아트의 시설

- 편집입력기 15대 • 영문 전용입력기 2대
- 레이저 프린터 2대 • 인화지 및 필름 출력기 1대
- 영문 전용 출력기 1대

지식산업의 파이오니어



서울특별시 중로구 견지동 87-1
TEL : 732-8274 · 738-8622
FAX : 739-9356